

# 조선후기 성호학과(星湖學派)의 고학(古學) 연구를 통한 본초학(本草學) 인식

조성산\*

1. 머리말
2. 성호학파의 유의(儒醫) 전통과 그 면모
3. 고학적 학술경향과 본초학의 상호관련성
4. 성호학파의 본초학에 대한 관심과 민간의료에 대한 문제의식
5. 맺음말

## 1. 머리말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사기(史記)』 등의 고문헌들의 광범위한 출판을 통하여 형성된 명대(明代, 1368-1644) 학술의 고학적(古學的)인 학술경향은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sup>1)</sup> 여기에서 고학은 주자학 중심의 송(宋)나라(960-1279) 학술체계를 비판하고 선진 양한(先秦兩漢, ?-220) 시대의 문헌들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술과 학술활동 전반을 의미한다(조성산, 2014a: 33-38). 이 시기 형성된 고학적 학술경향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주로 한문학(漢文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한문학 이외 다른 학문 분야, 특히 의학(醫學) 분야에 어떠한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이메일: csungsan@skku.edu

1) 명대 문헌편찬에 대해서는(Chow, 2004; Brokaw & Chow eds., 2005; 大木康, 2005; 2009; 황지영, 2012; 井上進, 2002; 2011) 참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본 글은 일본 도쿠가와 시기(1603-1867)의 요시마스 토도(吉益東洞, 1702-1773)로 대표되는 고방파(古方派)에 우선 주목하였다.

요시마스 토도로 대표되는 고방파는 의학 분야의 주자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의학이론을 비판하면서 한 대(漢代, BC 206-AD 220) 장중경(張仲景, 150-219)의 『상한론(傷寒論)』을 중심으로 하는 고의학(古醫學)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명대 고학적 경향, 구체적으로는 선진양한 시대의 문체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진한고문파(秦漢古文派)의 영향을 받아서 고문사학(古文辭學)을 주장하였던 오규 소라이(狄生徂徠, 1666-1728)의 출현에 비견된다.<sup>2)</sup> 양자 사이에는 고학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요시마스 토도는 오규 소라이의 영향을 받았다(신현규 외, 1997 :41-42; 박현국 외, 2007: 233; 寺澤捷年, 2013: 32-34). 명나라에서 시작된 고학의 문제의식이 일본 도쿠가와 시기에 한문학과 경학을 넘어 의학 분야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의 사정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 본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다.

조선에서도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이후 명대 진한고문풍의 문학사조가 유입되어서 17세기 초 조선의 진한고문파가 성립되었다(강명관, 1995: 304). 이것은 당색과 학파를 넘어 서인(西人)과 남인(南人)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서 당시 대표적인 문장가들이었던 윤근수(尹根壽, 1537-1616),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신흠(申欽, 1566-1628), 허목(許穆, 1595-1682) 등의 인물들은 진한고문풍의 문학과 학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 문장과 학술의 경향은 18세기에 들어서 주로 남인 학맥의 허목과 이익(李瀾, 1681-1763) 문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서울·경기지역의 성호학파(星湖學派)를 중심으

2) 狄生徂徠, 『徂徠集』 卷27 「答屈景山」, “李王二公沒世用其力於文章之業 而不逮及經術 然不佞藉其學 以得窺經術之一斑焉 是不佞所以俾從游之士 學二公之業者 亦以其所驗於己者教之也 豈有它意乎.”

로 계승되었다.

명대의 고학적 학술경향은 각 학파별로 계승되었지만, 서인(西人)-노론(老論)의 학술전통에서는 거의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론 학술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안동김씨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고학 단절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고학이 갖는 이단성과 비현실성을 비판하였다(조성산, 2003: 376-387). 이 과정을 통하여 노론 내에서 고학은 배제되었고, 그것의 발전은 상당 부분 차단되었다. 이에 반해서 허목은 고학적 학술경향을 발전시켰다(김도련, 1998: 57; 정옥자, 1991; 김준석, 1987; 한영우, 1989). 명대 형성된 고학적 학술경향은 18세기 이후 근기남인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동준, 2013: 134).

성호학파는 이익의 친인척과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또한 이익의 학술적 영향관계 속에 있었다(강세구, 2000: 55-72). 이들을 중심으로 문장으로는 상고적(尙古的)인 문장을 구사하는 문풍이 발전하였고(김동준, 2013: 133-137), 또한 학술적으로는 송대 주자학에 의지하지 않고 선진양한 문헌 그 자체에 입각한 경전해석을 시도하려는 학풍이 형성되었다(최봉영, 1987; 최석기, 2010: 137-154).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요시마쓰 토도가 등장하였던 학문적 토양은 근기남인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조선에서도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익과 그의 학문적 후에 정약용 또한 의학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남겼다. 기존 연구들은 이익, 정약용의 의학을 살펴봄에 있어서 주로 서학(西學)의 영향관계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김두중, 1966: 361-362; 三木榮, 1972: 231-233; 김성수, 2008; 여인석 외, 2012: 174-175). 그들이 서학을 수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선진적인 의학이론을 전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학의 영향관계만을 강조할 경우 서학 수용 이전에 그들이 이미 가졌던 사상의 독특성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성호학파의 서학 수용이 가졌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서학의 영향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서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그들의 내적인 학문토양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의학사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정약용의 의학과 서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고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서봉남 · 김남일, 2003), 정약용의 의학과 그의 고학적인 학술경향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정약용은 서학보다는 전통적인 고학 학술체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호학파의 고학적 학술경향은 그들의 서학 수용과 함께 주자학의 학술체계를 비판하는 데 많은 부분 기여하였다. 서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 속에서 그 동안 많은 부분 주목받지 못하였던 명대 고학풍의 영향을 그들의 의학 담론을 통하여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성호학파 지식인들의 의학 연구와 그들의 고학 연구와의 상호 관련성을 조명함으로써 의학에서의 고학적 학술경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요시마쓰 토도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며, 명대 고학의 학술체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조선의 의학지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성호학파의 유의(儒醫) 전통과 그 면모

성호학파의 의학 연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전제와 배경으로서 성호학파의 선배 격이 되는 북인계 남인들과 그 후예들, 그리고 성호학파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성호이익 집안은 정치적으로는 북인계와 연결되며 학문적으로는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문도들, 즉 화담학파(花潭學派)의 학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이성무, 2000: 14-23). 성호학파의 근간이 되었던 허목과 윤휴(尹鑄, 1617-1680) 또한 모두 그 선대는 정치적으로 북인계, 학문적으로는 화담학파와 깊은 관련성을 가졌다(신병주, 2004: 163-176). 따라서 성호학파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북인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 유의(儒醫) 가운데에는 유독 복인계 지식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오운육기(五運六氣)를 중심으로 내재적 상응과 연결을 중시하는 내경(內經)의 의학담론과 화담학파의 소옹(邵雍, 1011-1077) 상수학(象數學) 연구는 의학과 역학(易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상세히 말해서, 그들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소옹 상수학이 갖는 세계이해가 상(象)과 수(數)를 통하여 우주와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를 통하여 인체를 이해하고자 했던 내경학의 세계관과 그 시도 면에서 많은 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복인계가 가졌던 도가적 학문성향(신병주, 2000: 241-252) 또한 양생학과 관련하여 그들의 의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김호, 2000: 134-150). 따라서 이 학파에서 의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렴(鄭濂, 1506-1540)은 의학 분야에 해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3)</sup> 『정북창방(鄭北窓方)』이라는 의학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김호, 2000: 138). 그의 아우 정작(鄭碯, 1533-1603)은 『동의보감(東醫寶鑑)』 편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김호, 2000: 134).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許浚, 1539-1615)은 화담학과 복인계 인물들의 삼교회통(三教會通) 사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졌다(김호, 2000: 136-150). 이지함(李之菡, 1517-1578)은 화담학파로서 천문·지리·복서·의약에 정통하였으며,<sup>4)</sup>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은 역학과 『율려신서(律呂新書)』,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천문·지리·의약·복서·병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sup>5)</sup>

17·18세기 복인학풍의 의학연구의 전통은 허목을 거쳐서 경기도 안산과

3) 金得臣, 『柏谷集』 冊六「北窓傳」, “北窓姓鄭 名濂 字士潔 號北窓 東方之異人也 生而天稟甚高 聰明出衆 凡書一寓目而盡誦 天文地理醫藥卜筮曆算律呂華語聖學禪學仙方 皆不學而能。”

4) 李之菡, 『土亭先生遺稿』 序「土亭先生遺稿序(鄭濬撰)」, “先生姿稟甚高 氣度異常 學無師承 神解宏博 凡天文地理醫藥卜筮律呂算數知音察色神方秘訣 無不通曉。”

5) 鄭介淸, 『困齋先生愚得錄』 附錄上「困齋先生事實」, “若至易學及律呂新書 皇極經世書 用力益篤 而天文地理 醫藥卜筮 算數戰陣之法 皇帝霸道功德力之術 靡不歷究。”

충청도 예산 지역의 북인계와 성호학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이 지역의 북인계 인물들과 성호학과 인물들 사이에는 선대에 같은 기원을 갖고 있었던 터라 많은 상호 교류가 있었다(강경훈, 2001: 59-70). 허목은 의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김남일, 2011: 37-38). 또한 이익은 주지하듯이 허목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김성수, 2008; 강민구, 2014).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학문적 영향관계에 있었던 경기도 안산과 충청도 예산지역의 문화류씨, 진주류씨, 진주강씨, 여주이씨, 전주이씨, 나주정씨 인물들은 의학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류씨 류상(柳瑒, ?-)·류중림(柳重臨, 1705-1771), 진주류씨 류경종(柳慶種, 1714-1784), 진주강씨 강세황(姜世晃, 1713-1791)·강이오(姜彝五, 1788-?), 여주이씨 이익·이철환(李嘉煥, 1722-1779)·이삼환(李森煥, 1729-1813)·이용휴(李用休, 1708-1782)·이재남(李載南, 1755-1835)·이재적(李載績, 1758-1811), 전주이씨 이헌길(李獻吉, ?-), 나주정씨 정약용·정학연(丁學淵, 1783-1859) 등의 지식인들이었다.

경기도 안산지역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의학에 관하여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었던 가문은 문화류씨들이었다. 류상은 숙종의 천연두를 치료하면서 유명해졌다(정연식, 2005: 106). 그의 아들 류중림은 아버지의 의업을 전수 받았다. 그는 1741년부터 두의(痘醫)로 이름이 높았고 태의원의약(太醫院醫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내의에 종사하였다. 그는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증보하여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편찬하기도 하였다.<sup>6)</sup> 류중림은 의술뿐만 아니라 병학(兵學)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병학대성(兵學大成)』이라는 저작을 남겼다.<sup>7)</sup>

당시 안산의 대표적인 북인계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진주류씨 가문의 류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서울: 동국문화사, 1959) 上, 卷32, p. 934 「增補山林經濟辨證說」, “按文城柳氏譜 柳重臨 柳知事瑒後孫 瑒以進士爲議藥同參 官至知事 以痘醫鳴於一國 重臨字大而 以進士爲執事於軍門 又入太醫議藥之任 官至外任 嘗撰輯山林經濟增補 至十一卷之多 歲丙戌處署 西河任希聖子時爲之序 行于世.”

7) 趙龜命, 『東谿集』 卷1 「兵學大成序」.

경종 또한 의학에 해박하였다. 류경종은 성호학파의 문인으로서 조부인 류명현(柳命賢, 1643-1703) 대에 형성된 청한당(淸閑堂), 경성당(竟成堂) 등에 소장된 많은 서적들을 통하여 명물도수지학(名物度數之學)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지역 남인·소북 문인들의 교류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강경훈, 2001: 60-62).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은 류경종이 경사(經史)에 해박하였고 천문, 지리, 의약, 복서에 두루 통하였으며 은둔지사로 살았다고 하였다.<sup>8)</sup> 류경종의 처남 강세황은 그에 관하여 “여향과 시골의 이야기들, 물건 이름과 도량형의 명칭 등을 만드시 기록하여 밝혔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온갖 물정도 모두 붓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기발한 의견과 훌륭한 논평이 많았다.”<sup>9)</sup>고 회고하였다.

진주강씨 강세황 가문의 의학에 대한 관심도 류경종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류경종과 강세황은 처남·매부 사이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평생 가졌다. 이를 통하여 류경종의 명물도수지학과 의학에 대한 관심은 강세황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령, 강세황은 불회목(不灰木)이 부스럼이나 검게 멎들었을 때 이것에 불을 붙여 배꼽에 붙이면 붉게 되고 윤기가 돈다고 하였고, 또한 금창(金瘡) 등 여러 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임을 적었다.<sup>10)</sup>

이와 함께 강세황은 안경에 대해서 상세한 의학적 지식을 가졌다. 그는 “

- 
- 8) 晉州柳氏慕先錄 編纂委員會, 『晉州柳氏文獻總輯』卷2「愚亭柳公事略」(朴聖源), “公博學善經史 兼通天文地理醫藥卜筮之類 常以奇氣自負 不肯苟附於青雲之士 故如蘭混衆草不能聞香.”
- 9) 姜世晃, 『豹菴稿』卷6「海巖柳公行狀」, “街巷俚野之談 名物度數之分 必記錄而發明之 人生日用事爲物情 亦皆收拾筆墨間 其中多有奇言至論 公於東方故事 尤極該博 檀箕以後 降至麗末 談說滾滾 本朝故實 歷歷如昨日事 明宣之際 名公鉅卿出處文章 舉皆洞貫 惟其喜談東事 博觀諸集 故碑碣狀誌 參互共貫 某氏之籍某鄉 某人之爲某孫 無不瞭然.”
- 10) 姜世晃, 『豹菴稿』卷5「不灰木」, “不灰木 昔曾見於京都一人家 形似乾石 魚之去鱗者 蓋色白而性柔 又如破帛之摺疊 作砧石衣者 元非木類也 以小片燃而燈心 蘸油燃火 火即燃 燃盡而燈心未嘗焦也 又納於烈火中 終不焦爛 亦奇物也 云是滑石之根 形雖柔軟 石性故在 所以入火不焦也 惟以牛糞燃火而投之 卽成灰云 亦理之不可詰 醫方亦有用處 或云痘瘡黑陷者 以此燻爛 附臍中 亦皆紅活如神 考本草亦用於金瘡諸病云 偶閱謝在杭五雜俎 有未嘗目觀之語 可想此物之希異也 又吸毒石 色灰青成塊 凡有惡瘡毒腫蟲蛇毒 以此摩之 毒盡去 非產東國者 其價亦甚貴云 而本草無其名 未知別有他名而未能下耶.”

안경이 볼록하고 오목한 것과 시력이 밝고 어두운 것이 모두 같지 않으며 또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이 모두 다르다. 혹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눈에다 걸치고 망령되어 좋다 나쁘다 칭하니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11)</sup>고 하였다. 강세황은 류경종의 부탁으로 약명시(藥名詩)를 써 주기도 하였다.<sup>12)</sup> 이러한 강세황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전승한 이는 그의 서손이었던姜이오(姜彝五, 1788-1857)였다. 그 또한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약산호고종방촬요(若山好古腫方撮要)』와 『약산호고(若山好古)』라는 저작을 남겼다.<sup>13)</sup>

본 글의 중심인 여주이씨 이익 가문은 경기도 안산과 충청도 예산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대체적으로 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이익의 종조숙부였던 이원진(李元鎭, 1594-1665)과 형 이서(李澈, 1662-1723)는 모두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sup>14)</sup> 이러한 학풍 속에서 이익 또한 자연스럽게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된다.<sup>15)</sup> 우선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이익의 증손자였던 이재남과 이재적은 박식고아(博識古雅)하였고 의술에 정통했다. 특히 이재남과 이재적이 신농술(神農術)에 능통하였다는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의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그들은 본초학(本草學)에 특장이 있었던 듯하다(김영진, 2005: 122).<sup>16)</sup>

11) 姜世晃, 『豹菴稿』卷5「眼鏡」, “惟眼鏡口爲老人昏眸之助 然鏡之隆凹與眼之明暗 各自不同 又且遠視近觀 亦各殊異 或有鹵莽者加於眼而妄稱美惡 不可不細察也 又以琉璃方板 背塗水銀 以代銅鏡 亦有極朗澈者 此亦古所未有 想出於西洋也.”

12) 姜世晃, 『豹菴稿』卷5「書藥名詩後」.

13) 姜彝五, 『(국역)약산호고종방촬요·식의심감』, 안상우 외 역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pp. 137-140.

14) 李瀾, 『星湖全集』卷67「從祖叔父太湖公行錄」, “經傳子史 無不旁通 午貫 凡聲律陰陽兵陣卜筮星經地理書射計數之類 各極臻妙 嘗曰六藝惟御非世習也 其餘吾皆能之 至於鳥獸草木之名 緒餘多識 顯廟患目疾 使質空青於燕市 不辨眞贗 上曰試訪諸李某可得也 公曰眞矣 但色不潤 恐津液內竭 驗之果然 金參判始振號博物 遇諸道 取草中罕見者叩之 公曰於意云何 金曰此某名也 公曰此物本草名某而鄉藥名某 各方不同 子所聞卽嶺南謬稱也.”; 李瀾, 『星湖全集』卷68「三兄玉洞先生家傳」, “汎及於律歷之書 甘石岐黃之術 大小相衡 本末兼該 無不參互著明.”

15) 이익의 의학에 대한 관심은 (김성수, 2008; 강민구, 2014) 참조.

16) 沈能淑, 『後吾知可』二册, “安山李隱君兄弟 惺翁之孫 博識古雅 明於軒岐之術 知舊以病往



충청도 예산에 거주하던 이익의 조카 이광휴(李廣休, 1693-1761)의 아들들인 이철환과 이삼환은 성호학과 의학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철환은 의학에 조예가 깊어서, 사람들이 병에 대하여 물어오면 침약(鍼藥)으로 처방하였다고 한다.<sup>17)</sup> 당시에 마진(麻疹)에 대한 처방으로 유명했던 전주이씨 이헌길은 이철환의 제자였다(최진우, 2007: 8-9).<sup>18)</sup> 이삼환의 경우에도 의학연구에 정통하였다. 특히 그는 마진에 특장을 발휘하였으며(곽호제 2004: 59),<sup>19)</sup> 또한 동생이 기질(奇疾)에 걸리자 자신의 의술로 그를 고치고자 하였다.<sup>20)</sup> 그 밖에 이익의 조카 이용휴는 본초학에 관심을 가졌으며,<sup>21)</sup> 이익의 조카 이병휴(李秉休, 1710-1776) 또한 의술에 조예가 깊었다.<sup>22)</sup>

성호학을 계승한 정약용의 경우에도 의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천연두를 앓을 때에 이헌길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경험을 통하여 마진 등의 질병에 관심을 갖고서 『마과회통(麻科會通)』을 저술하였으며, 그 밖에 당대 의학의 문제들을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기술한 『의령(醫零)』을 남겼다. 그의 아들 정학연 또한 의원을 열 정도로 의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정약용은 정학연에게 의술을 펼침에 있어서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고하였다.<sup>23)</sup>

叩則輒施之。”

17) 李東允, 『樸素村話』 地 卷172화, “李嘉煥居德山……人有問病者 命以針藥 輒效 種樹治圃 皆有方 事半功倍 與有道僧論佛經奧義 僧莫不屈服 嘉煥當丙申春 仰觀天象 歎曰 有氣犯紫微垣 國家必有事 是日英廟昇遐 …… 嘉煥可謂能通天地理兵家等書 而有所前知者歟.”

18) 이헌길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七卷 「蒙叟傳」.

19) 李森煥, 『少眉山房藏』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附錄 行狀 p. 135, “歲乙未 麻疹大行 時運極險 先生乃取馬氏麻科彙編 着心究會得其要領 先試之於家間而效 次試之於隣里而效.”

20) 李是鉞, 『六懷堂遺稿』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附錄 「木齋先生墓誌銘」 p. 544, “弟邁奇疾 先生旁究黃岐之書 手致藥物 得以少延.”

21) 李用休, 『惠寶雜著』 卷12 「本草」.

22)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五卷 「貞軒墓誌銘」, “九經四書二十三史 以至諸子 百家詩賦雜文叢書稗官象譯算律之學 牛醫馬巫之說 惡瘡癰漏之方 凡以文字爲名者 一叩皆輪寫不滯 又皆研精核實 一似專治者然 問者駭愕 疑其爲鬼神.”

23)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八卷 「示學淵家誠」, “汝忽成醫人何意哉 有何益哉 汝欲藉此術 交結時宰 圖有乃翁耶 不但不可 抑且不能 世俗有所謂虛德色 汝知之乎 吹不費之唇 以悅汝志 歸而冷笑者滔滔 汝尙不覺乎 微示炙手之熱 使之屈躬伏地 汝果陷於術中 不

이와 같이 성호학과 관련 인물들은 이전 시대부터 의학에 조예가 깊었고, 그러한 점에서 유의의 전통을 가졌다. 이러한 유의의 전통과 토양 속에서 기존 금원사대가 중심의 의학에 의문을 품고서 새로운 의학에 관심 갖는 풍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성호학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었던 의학에 대한 관심은 본 글이 다루고자 하는 성호학파의 고학 연구와 본초학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에서 그들의 의학 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이익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고학적 학술경향과 본초학의 상호관련성

이 부분에서는 고학적 학술경향과 본초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경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몸의 세계를 형이상학적인 질서 속에서 규정하고 해석하는 의학이론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야마다 게이치, 2002: 89-140). 이 내경학의 이론체계는 그것이 성립된 고대사회 이후 매우 오랫동안 동아시아 의학이론의 기본체계를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음양오행과 오운육기와 같은 이론들이 주를 이루었고, 전근대 동아시아 의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몸의 장부(臟府)에 결부시키면서 그 내적 관계와 상응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주진형(朱震亨, 1281-1358), 이고(李杲, 1180-1251) 등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논의들과 만나면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야마다 게이치, 2002: 223). 송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지식체계와 내경학은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그 추상성과 이론성을 극도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 이론들은 명나라 시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명대 학술계에서는 송대의 형이상학적인 학술체계에 대한 비판작업이 넓

---

愚人哉 凡人有高官清銜盛德遠學者 旁道醫理 其身不至太賤 然且病家不敢直問 須設三梯四階 僅得一方 如獲重寶 猶之可也 今汝大放厥聲 大開其門 冷熱卑高邪正之流 日填其巷 魚頭獸面間雜之輩 不問來歷 不詳本行 皆傾蓋許交 典其館穀 斯何變也 此後之事 吾猶有耳 如其不悛 不唯生不通信 抑亦死不瞑目 汝其唯意爲之 吾不再言。”

은 범위에서 수행되었다. 수많은 제자백가 문헌들이 출간되면서 선진양한의 사유와 문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겨났고, 이를 통하여 송대 주자학(朱子學)을 극복할 수 있는 학문바탕으로서 고학의 학술경향이 마련되었다. 송대 학술을 넘어서 선진양한 학술에 대하여 관심 갖는 풍조는 학술 전반에 있어서 ‘고(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井上進, 2002: 281-319).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에서 본 글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이들은 조선과 일본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던 왕세정(王世貞, 1526-1590)과 이만룡(李攀龍, 1514-1570)과 같은 진한고문과 문인들이었다.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조선에서 허목과 윤휴(尹鑄, 1617-1680) 및 이를 계승한 이익의 성호학과, 정약용 등이 이 명대 고학풍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학맥에 속해 있다면, 일본에서는 오규 소라이와 그 제자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우주와 세계를 선형적이고 연역적인 이론체계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들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주자학의 형이상학에 비판적이었다. 가령 오규 소라이는 형이상학적인 음양오행론을 비판하였고, 실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일에서 유학의 도를 찾고자 하였다(寺澤捷年, 2013: 79-82). 정약용은 『맹자요의(孟子要義)』에서 주자학의 형이상학이 불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서, 이를 근거로 선진 유학(先秦儒學)의 본의를 되살리고자 하였다.<sup>24)</sup>

이렇게 주자학의 형이상학이 갖는 추상성을 배제하고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실에서 진정한 유학적 고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은 의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명대 이후에 이루어진 금원사대가에 대한 비판은 고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려는 명대의 복고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 금원사대가에 대한 비판은 송학이 구축한 주자학적 형이상학의 붕괴와 그에 대한 명나라 학술의 대응이라는 점

24)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二集 經集 第六卷 ○孟子要義 盡心第七 盡其心者知其性章, “所謂始於一理 散爲萬殊 未復合於一理也 此與趙洲萬法歸一之說 毫無不差 蓋猶宋諸先生 初年多溺於禪學 及其回來之後 猶於性理之說 不無因循 故每日佛氏彌近理而大亂眞 夫既曰未近理 則其中猶有所取可知也.”

과 깊은 연관성을 가졌다(Unschuld, 2010b: 197). 그렇다면 그 대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선형적이고 연역적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그 이론들이 갖는 추상성을 걷어내고 구체적인 상황, 그 자체에 착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재발견되었던 것은 한대 장중경의 『상한론』이었다. 중국에서 『상한론』이 송대 이후 다시 부각되면서 의학의 복고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송대 주자학에 대한 반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명말청초 시기였다.<sup>25)</sup> 대표적인 인물과 저작으로는 방유집(方有執, 1523-1593)의 『상한론조변(傷寒論條辨)』, 유창(兪昌, 1585-1665)의 『상한상론편(傷寒尙論篇)』, 『의문법률(醫門法律)』, 황원어(黃元御, 1705-1758)의 『상한현해(傷寒懸解)』, 가금(柯琴, 1662-1735)의 『상한론주(傷寒論注)』, 『상한론익(傷寒論翼)』, 『상한부익(傷寒附翼)』 등이 있었다(寺澤捷年, 2013: 7-8; 조기호, 2008: 204). 요시마스트도도도 넓게 보면 이러한 중국의 의학복고 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의학의 복고운동이 명대 의학체계의 전체 변화인 것으로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명대에도 금원사대가의 학술적 전통은 면면히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嚴世芸, 2011, 531-537). 하지만 분명히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상한론』 인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sup>26)</sup> 본 글은 이러한 질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경학이 오장육부에 음양오행의 기호를 선형적으로 부여하고, 그것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속에서 전체가 부분을 통제한다는 구조적인 인간 몸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김희정, 2008: 213-283), 『상한론』의 의학정신은 이와는 구분되었다. 『상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와 논란이 있지만, 『상한론』이 내경학과 크게 달랐던 점은 몸을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처럼 형이상학적

25) 중국에서는 11-12세기에 제1차 『상한론』의 유행이, 16-17세기에 제2차 『상한론』의 유행이 있었다고 한다(조기호, 2008: 204).

26) 『상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데에는 의학의 복고운동 이외에도 명말청초 시기 전염병의 유행도 그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408년부터 1643년 사이에 60여 차례의 전국적인 역병이 유행하였다고 한다(김기욱 외, 2006: 252).

인 이론의 구조물로 전제하지 않고서 주로 증상을 정밀히 관찰하고 이를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야마다 게이 지, 2002, 169-171; 김용옥, 1993: 132-135; 박경모 · 최승훈, 1995: 289). 『상한론』은 변증시치(辨證施治)에 가장 충실한 임상의학서였던 것이다.

‘병의 증상과 그 병을 치료하는 약재와 처방’ 그 자체에 착목한다는 점에서 『상한론』은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藥)의 성(性)과 능(能)을 명확히 규정하는 본초학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경학과 『상한론』의 차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약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는 각각의 이론 체계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달랐는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서진(西晉, 265-317)의 황보밀(黃甫謚, 215-282)이 “이윤(伊尹)이 성인과 버금가는 재주로 『탕액(湯液)』을 지었고 장중경은 이윤의 『탕액』을 넓혀서 십수 권의 책을 지었다”<sup>27)</sup>고 한 것은 『상한론』이 가졌던 본초학과의 관련성을 말해준다(야마다 게이 지, 2002: 170-171, 175-176).

무희용(繆希雍, 1546-1627)이 자신이 저술한 본초학 문헌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疏)』에서 “나는 일찍이 장중경의 법을 준수하여 모든 외사(外邪)가 병이 됨을 다스렸으니 하나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장중경의 말이 아니라면 만세의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sup>28)</sup>고 하면서 장중경의 『상한론』을 극찬한 내용과 『상한론』을 숭상한 요시마스 토도가 본초학 문헌 『약징(藥徵)』을 저술한 사실 또한 『상한론』과 본초학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장중경이 체계적 상응이론(음양오행론)과 본초학을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논의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운슬트, 2010a: 135-136).

반면에 내경학 속에서 본초학은 의학행위의 주류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있었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원래 오행의 이론에 대해서 전혀 고려

27) 黃甫謚, 『黃帝三部鍼灸甲乙經』序, “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 以爲蕩液 …… 仲景論廣伊尹蕩液爲十數卷 用之多驗 近代太醫令王叔和撰次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

28) 繆希雍, 『神農本草經疏』(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卷1 “論五運六氣之謬” p. 317, “予嘗遵仲景法治一切外邪爲病 靡不響應 乃信非仲景之言 不可以爲萬世法.”

하지 않았듯이 본초학은 처음에 내경학 속에서 부수적이거나 거의 포섭되지 못했다(Unschuld, 2010b: 115). 음양오행의 체계적 상응을 전제로 인간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내경학의 사유 속에서 본초학과 같은 외부적인 약에 의한 치료행위는 중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부적인 약에 의한 치료행위, 즉 본초학이 강조된다면 내경학이 갖는 인간 몸의 본원적인 전체성과 완전성은 그 만큼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 이러한 측면에서 내경학은 ‘본초학이 배제된 의학(Medicine without Pharmaceuticals)’이라고 할 수 있었다(운솔트, 2010a: 127). 그러한 이유로 본초학은 내경학의 이론체계, 즉 음양오행론과 불완전하게 결합하는 형태로 종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sup>30)</sup>

이점에서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론을 의식하지 않는 고대 의학인 『상한론』의 복권은 내경학으로부터 본초학이 독립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었다.<sup>31)</sup> 『상한론』의 복권과 함께 본초학 관련 문헌들이 명나라 말기에 증가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대에 등장한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1578), 이후 등장하는 명나라 이중립(李中立, ?-?)의 『본초원시(本草原始)』(1612), 예주모(倪朱謨, ?-?)의 『본초회언(本草匯言)』(1624), 무희웅의 『신농본초경소』(1625)는 명나라 시대 본초학의 성과들을 보여준다. 파울 U. 운솔트(Paul U. Unschuld)는 명말 청초 새롭게 본초학이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갑자기 사람들은 전에 몰랐던 사실, 즉 약효의 실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부적절함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다시 성분과 눈에 보이는 효과라는 현실로 돌아왔다(운솔트, 2010a: 281).”

이것은 명 말기 본초학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며, 이 시기 본초학에

29) 『黃帝內經靈樞』의 다음 언급은 이와 관련이 있다. “黃帝問于岐伯曰 余子萬民 養百姓 而收其租稅 余哀其不給 而屬有疾病 余欲勿使被毒藥 無用砭石 欲以微針通其經脈 調其血氣 榮其逆順出入之會 令可傳于後世 必明爲之法 令終而不滅 久而不絕。”(『黃帝內經靈樞』卷1「九鍼十二原第一 法天」)

30) 이 문단의 서술은 (운솔트, 2010a: 127-133)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31) 파울 U. 운솔트는 위 책에서 장중경의 『상한론』에 대해서 ‘의학이 배제된 본초학(Pharmaceutics without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썼다(운솔트, 2010a: 134-136).

관심 가졌던 이들이 『상한론』을 숭상하고 오운육기설을 부정하는 의미들을 잘 설명해준다. 이제 변쇄한 형이상학적인 이론보다는 눈에 보이는 약의 효과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sup>32)</sup> 그러한 이유로 명청대에 송대 학술의 전반적인 퇴조 속에서도 본초학은 유지 발전될 수 있었다(운솔트, 2010a: 294). 오운육기학설을 부정하고 장중경의 『상한론』을 새롭게 주장한 무희웅의 『신농본초경소』와 요시마스 토도의 『약징』은 이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오운육기설과 같은 연역적이고 선형적인 학술에 대한 부정이 새롭게 본초학에 대하여 관심 갖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약용 또한 오운육기설 비판에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sup>33)</sup> 이 세 사람들의 오운육기설 비판의 논리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희웅]

대저 오운육기(五運六氣)의 설을 살펴보면 그 기원은 한위(漢魏)의 시대에 기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장중경(張仲景)은 한나라 말기의 사람인데 그 서적에는 오운육기설이 실려 있지 않았다. 화원화(華元化)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사람인데 그 서적에는 또한 오운육기설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전에는 월(越)나라 사람에게도 그 문장이 없고 이후에는 왕숙화(王叔和)가 그 설을 드물게 말하였으니, 나는 이 때문에 그것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치료(治療)에 무익(無益)하며 후대 학자들을 오류에 빠지게 할 것임을 알겠으니 학자들은 마땅히 깊이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 이후에 나의 마을 조소재(趙少宰)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송판(宋版) 『중경상한론(仲景傷寒論)』은 모두 북송(北宋)대의 선판(善板)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검토해보니 이 설이 실려 있지 않았다. 육경치법(六經治法) 가운데 또한 아울러 한 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에 나의 견해에 오류가 없음과 이것이 결단코 상한(傷寒)과 외감(外感)을 다스리는 설이 아님을 명료

32) 이러한 깨달음은 사실 주자학의 형이상학적인 변쇄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을 모색했던 명나라 말기 학술계와도 닮아 있었다.

33)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七集 醫學集 第六卷 ○麻科會通六醫零「六氣論 一, 二, 三」; 丁若鏞, 『與猶堂全書』第四集 樂集 第一卷 ○樂書孤存—「辨吹律 不可以正五音」, “譬如醫者 僞冒五運六氣之說 及其臨病而投藥也 實無所舉而措之者 又安所用之哉.”

하게 믿게 되었다. 나는 일찍이 중경(仲景)의 법을 준수하여 모든 외사(外邪)가 병이 됨을 다스렸는데, 하나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중경의 말이 아니라면 만세의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sup>34)</sup>

[요시마스 토도]

(1) 음양(陰陽)이라는 것은 천지(天地)의 기운이니 의학(醫學)에서 취할 것이 없다. …… 기타 육경(六經)의 음양(陰陽)과 같은 것은 억지로 그것으로 설(說)을 만들면 안된다. 치료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sup>35)</sup>

(2) 오행의 설은 우서(虞書)와 홍범(洪範)에 이미 보이며, 아래로는 한(漢)나라 유학자들에 이르러 그것을 적극 말하였다. 『소문(素問)』과 『난경(難經)』은 이것을 가지고 천하의 모든 이치를 총괄하고 사람의 모든 질병을 궁구하고자 하였다. 그 설이 마치 부계(符契)와 같았다. 비록 그리하나 요컨대, 모두 논설(論說)의 말일 따름이다. 지금 그 설을 가지고 이 술(術)로 치료하면 오류가 천리만큼이나 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행(五行)을 취하지 않는 이유이다. 후세 사람들은 그 이론을 늘리고 부연하여 궁극적인 이치라고 과장하는데, 무용(無用)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sup>36)</sup>

(3) 오운육기(五運六氣)라는 것은 병(病)에 증험할 것이 없다. 사천(司天)과 재천(在泉)을 살펴서 태과불급(大過不及)을 미루어 보고 한열온량(寒熱溫涼)을 정하여 주된 병을 살피고 맥에 응

34) 繆希雍, 『神農本草經疏』(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卷1 「論五運六氣之謬」 p. 317, “原夫五運六氣之說 其起源于漢魏之世乎 何者 張仲景漢末人也 其書不載也 華元化三國人也 其書亦不載也 前之則越人無其文 後之則叔和鮮其說 予是以知其爲後世所撰 無益于治療 而有誤乎來學 學者宜深辨之 …… 後從敝邑趙少宰家藏宋版仲景傷寒論 皆北宋善板 始終詳檢 並未嘗載有是說 六經治法之中 亦並無一字及之 余乃諦信予見之不謬 而斷爲非治傷寒外感之說 予嘗遵仲景法 治一切外邪爲病 靡不響應 乃信非仲景之言 不可以爲萬世法。”

35) 吉益東洞, 『東洞全集』(東京: 吐鳳堂書店, 1918) 「醫斷」陰陽, p. 447, “陰陽者 天地之氣也 無取於醫矣 …… 其他如六經陰陽 不可強爲之說 非唯無益於治 反以惑人。”

36) 吉益東洞, 『東洞全集』(東京: 吐鳳堂書店, 1918) 「醫斷」五行, p. 448, “五行之說 已見虞書及洪範 下至漢儒 熾言之 素問難經 欲由是以總天下之衆理 窮人身之百病 說之若符契然 雖然 要皆論說之言已 今執其說 施之匙術 則致謬千里 是吾黨所以不取也 後人增演其說 以誇窮理 可謂無用之徒也已.”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은 그 증험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황 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37)</sup>

[정약용]

- (1) 『예기(禮記)』에 “사람을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 같은 무리에 해야 하며, 사물을 비길 때도 또한 그러하다. 비교함에 있어서 그 무리가 아닌 것에 하면 곧 논하고자 하는 바의 본래 사물의 리(理)는 또한 반드시 그릇되고 명확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오히려 육기(六氣)의 가운데에 깊이 빠져서 망연히 그 두서를 가리지 못하니, 또한 어떤 병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지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sup>38)</sup>
- (2) 이것은 모두 잘못된 논의이다. 추연(鄒衍) 이후 참위가(讖緯家)들이 혼란스럽게 한 바이지 결단코 삼대(三代) [결(缺)] 물가(物家)의 말한 바는 아니다.<sup>39)</sup>
- (3) 의자(醫者)들은 리(理)를 밝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진실로 분배부회(分排傳會)의 설을 어리석게도 맹신한다면 해 되는 것이 작지 않을 것이다.<sup>40)</sup>

이와 같이 무희용 이후에 직접적으로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론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무희용은 장중경의 논의에 오운육기의 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오운육기설은 한(漢)나라에서 위(魏)나라(220-265)로 이어지는 즈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였다. 요시마쓰 토도는 오운육기설은 한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이것은 우주자연의 논의

37) 吉益東洞, 『東洞全集』(東京: 吐鳳堂書店, 1918) 「醫斷」 運氣, p. 448, “五運六氣者 無驗於病也 考司天在泉 推大過不及 定寒熱溫涼 按主病 試應脈者 無有其驗 可謂迂矣.”

38)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七集 醫學集 第六卷 ○麻科會通六 醫零 「六氣論 一」, “禮曰 儼人必於其倫 儼物亦然 儼非其倫 即其所論本物之理 亦必謬戾而不明矣 …… 顧乃沈淪於六氣之中 茫然不辨其頭緒 又何病繇之足論哉.”

39)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七集 醫學集 第六卷 ○麻科會通六 醫零 「六氣論 二」, “此皆謬悠之論 鄒衍以後 讖諱家之所濁亂 斷非三代(缺)物家之所可言也.”

40)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七集 醫學集 第六卷 ○麻科會通六 醫零 「六氣論 三」, “醫者最要明理 苟於分排傳會之說 驟然奉信 爲害不淺矣.”

이지 인간 몸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가장 후기에 오운육기설을 비판한 정약용은 그만큼 가장 정리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1)에서 사물과 사람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하니 육기론에 빠져서 사물과 사람의 범주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2)에서는 오운육기설은 추연(鄒衍, BC 305-240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하(夏, BC 2070-BC 1600) · 은(殷, BC 1600-BC 1046) · 주(周, BC 1046-BC 256) 삼대시대의 논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3)에서는 의사는 이치를 따라야 하며 건강부회하는 설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오운육기설은 한 대 이후의 논설로 삼대시대의 논의가 아니며, 둘째, 우주자연의 논의와 인간 몸에 대한 논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이유로 의사는 근거 없는 건강부회한 설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본초학의 발전은 이와 같이 우주와 인간 몸을 함께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음양오행, 오운육기 논의의 퇴조와 깊은 연관성을 가졌다. 본초학에서 병과 약의 효과 이외에 인간 몸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적인 설명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동안 절대시되었던 음양오행론과 오운육기론의 대안적인 세계이해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본초학의 발전 배후에 있었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음양오행론과 오운육기론은 단순히 의학이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변화와 생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유의 틀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비판할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명대에는 주자학의 자연천에 대항하면서 고학의 학술경향에 영향을 받아 천(天)의 인격성에 주목하는 논의가 발전하였다. 명대 고학적 학술경향에 영향 받았던 왕세정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허목, 오규소라이 또한 천의 주재적 인격성에 주목하였다(조성산, 2014b: 167-184). 주자학은 천뿐만 아니라 귀신(鬼神)의 존재, 인간을 모두 이기론(理氣論)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는데(子安宣邦, 2002: 127-174), 명대에 와서는 이러한 사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기론을 넘어 인간과 다른

천과 귀신의 독특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논의들이 다시 사회 주변에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명나라에서 활발히 유통되었던 주재적 인격천(人格天)과 유귀론(有鬼論)을 전제로 한 선서(善書)의 유행은 이러한 변화된 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酒井忠夫, 2000: 85-86).

요시마스 토도의 사례도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시마스 토도는 음양오행론과 오운육기와 같은 물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이해와 결별하고서 인격적인 천을 숭상하는 종교담론과 새롭게 만났다. 그는 오규 소라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천도(天道)에 대한 종교적 함의를 수용하고, 오직 인도(人道), 즉 의술에만 집중하였다.<sup>41)</sup> 앞서 언급했듯이 오규 소라이는 명대 고학적인 학술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요시마스 토도의 의학철학은 인간의 병을 증상을 통하여 이해하고, 이를 고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인격적인 하늘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寺澤捷年, 2013: 32-34; 館野正美, 2014: 134-141).

하지만 이러한 결합이 요시마스 토도에게서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대 고학의 영향은 조선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영향 속에서 허목, 윤희, 이익, 정약용에게서는 천을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상정한 사천학(事天學)의 학술경향이 도래하였다(조성산, 2014b: 167-184). 근기남인 성호학파의 선조는 복인계 인물들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소옹 상수학에 경도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음양오행과 오운육기 이론과 상당한 학문적 친연성이 있었다. 하지만 인조반정(1623) 이후 복인정권의 퇴폐과정에서 그들의 소옹학에 대한 관심은 사천학이라는 천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논의로 새롭게 대체되어 갔다. 그러면서 소옹학의 논의들은 언급되지 않거나 위축되어 갔다(조성산, 2014b: 167-184).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양오행과 오운육기와 같은 논의들도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천학은 이후 일부 성호학파 지식인들에 의해서 천주교 신앙으로까지 발전

41) 오규 소라이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오운육기의 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服部敏良, 2007: 54-62).

하였으며, 이것은 오규 소라이가 언급한 천도의 인격적인 모습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성호학과와 오규 소라이, 요시마스 토도는 인격적인 주제천 상징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특히 정약용은 성호학과 안에서 상제(上帝) 관념을 통하여 주제적인 인격천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최정묵, 2014: 503-513). 정약용의 학문은 공자(孔子) 시대의 원시유학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수사학적(洙泗學的) 구조를 지녔다(이을호, 1965: 102-104; 금장태, 2000: 25-36). 수사는 산동지역의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지칭하며, 공자가 이 근처에서 강학 활동을 했던 이유로 수사학은 공자시대의 원시유학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정약용에게 있어서 고의 의미는 하·은·주 삼대시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가 주자학조차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을 보여준다.<sup>42)</sup> 정약용은 성호학과 인물들 가운데 고학의 본연에 가장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약용은 마침내 오운육기설을 부정하였고, 기존의 사천학을 상제설로 좀더 구체시켰다. 다시 말해서 정약용과 요시마스 토도는 오운육기의 부정, 고학과 사천학의 측면에서 매우 흡사한 점들을 공유하였다.

정약용은 「박취(薄醉)」라는 시에서 장중경의 학설을 익혔다고 하였고,<sup>43)</sup> 그를 의가지조종(醫家之祖宗)이라고 하였으며<sup>44)</sup> 「마과회통서(麻科會通序)」의 초찰제가성씨서목(抄撮諸家姓氏書目)에서 『상한론』을 짧게 소개하였다.<sup>45)</sup> 이와 함께 정약용은 무희웅과 이시진의 본초학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

42)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二集 經集 第六卷 ○孟子要義 盡心第七 盡其心者知其性章, “所謂始於一理 散爲萬殊 未復合於一理也 此與趙洲萬法歸一之說 毫無不差 蓋猶宋諸先生 初年多溺於禪學 及其回來之後 猶於性理之說 不無因循 故每日佛氏彌近理而大亂眞 夫既曰未近理 則其中猶有所取可知也.”

43)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四卷 ○詩集 詩「薄醉」, “薄醉排炎瘴 長風憶水亭 性豪憐摯鳥 身繫羨浮萍 病習張機論 飢拋陸羽經 鄉愁與國計 朝暮視滄溟.”

44)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七集 醫學集 第四卷 ○麻科會通 四 吾見篇 蝨蟲第八, “張仲景 醫家之祖宗.”

45)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七集 醫學集 第一卷 ○麻科會通 一 「麻科會通序」, “張仲景傷寒論 名機光武時人.”

였다.

무희용의 사진론(痧疹論)은 약성(藥性)을 배열하고 그 의기(宜忌)를 변별하였으니 가장 의거(依據)할 만하다. 대개 무희용과 이시진은 본초학에 밝았고 깊이 약성을 알았던 까닭에 반드시 대담입방(對搭立方)할 필요가 없었으니 병을 다스림에 해가 없었다. 그 세운바의 여러 방제는 또한 모두 정밀하고 새로워 취할 만하니 도습경략(蹈襲影掠)의 무리가 아니다.<sup>46)</sup>

정약용이 말한 대담입방(對搭立方)과 도습경략(蹈襲影掠)의 무리는 기본적으로 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기존 이론만을 베껴서 이용하는 자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논의를 구체화해보면 당시 조선의 주류 의학이론이 금원사대가들의 내경 이론이라고 할 때, 정약용이 비판하고자 한 이들은 기존 금원사대가들의 논의들을 그대로 묵수하는 자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례도 정약용의 고학 연구가 그의 본초학에 대한 관심에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났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옛 문장을 베껴서 문장을 짓는 사람들을 기존 처방만을 외는 사람들에 비교하였다. 기존 처방만을 외는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조선의 주류 의학이론인 금원사대가의 논의들을 베껴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학의 정신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는 본초학에 대한 관심 또한 제고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정약용에게 본초학은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복암(茯菴) 이기양(李基讓)이 철교(碓橋)의 우사(寓舍)에서 소갈병(消渴病)이 들어 의원 또한 치료할 수 없었다. 내가 가서 위

46)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七集 醫學集 第三卷 ○麻科會通 三 吾見篇「古醫第一」, “繆仲淳痧疹論 分列藥性 辨其宜忌 最有依據 蓋繆與李時珍 明於本草之學 深知藥性 故不必對搭立方 而無害於治病也 其所立諸方 亦俱精新可採 非蹈襲影掠之倫也.”

로하고, 인하여 그가 복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을 보고서 고하기를, “의가(醫家)에 약초가 있는 것은 마치 문장가(文章家)에 문자(文字)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의술을 행하는 자들은 약초의 뿌리마다 그 약성(藥性)을 분변하여 그 병에 맞게 사용하였는데, 후세에는 이미 만들어진 처방[成方]을 고집하고서 전체의 병에 투약하니 의술이 이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옛날 문장을 하는 자들은 글자마다 그 뜻을 분변하여 문리에 맞게 사용하였는데 후세에는 이미 이루어진 글귀[成句]를 외어다가 그 전체를 표절하니 문장이 옛 것만 못합니다” 했더니, 복암이 배개를 기대고 신음하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자리를 바로 하고 용모를 가다듬고서 내손을 잡고는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 말이 이처럼 이치에 맞는가!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내 가슴이 시원하여 한 첩의 청량산(淸涼散)보다 낫네” 하였다.<sup>47)</sup>

정약용은 의가(醫家)에 약초가 있는 것은 문장가에 문자가 있는 것과 같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옛날에 의사들은 약초의 약성을 하나하나 상세히 분변하여 그 병에 알맞게 사용하였는데, 후세에는 형식화된 처방으로 전체의 병에 대응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정약용에게 옛날의 문장 하는 이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터득하여 사리에 맞게 구사하였던 데 비해서 근대 문장가들은 옛 문장을 글귀채로 그대로 표절모의하여 결국 좋은 문장을 구사할 수 없게 된 사실과 맥락상 같았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옛 것을 그대로 베끼는 의고적(擬古的) 문장가들과 옛 처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후세의 의원들은 같은 존재들이었다. 다음의 글도 이러한 정약용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옛날에 의학(醫學)은 『본초(本草)』를 전문으로 습득하였다. 모든 초목의 성(性)·기(氣)·독(毒)·변(變)의 법제를 강구(講究)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병에 임하여 약을 씌에 있

47)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三卷「蒙學義彙序」, “昔茯苓李子於碓橋寓舍 病消渴 醫且不能治 余往而勞之 因觀其所餌諸方而告之曰 醫家有藥草 猶文家之有文字 古之爲醫者 根根而辨其性則用中其病 後世執成方而投其全 醫之術以汚 古之爲文者 字字而辨其旨 則使中其理 後世誦成句而勑其全 文莫猶古也 茯苓方據枕呻吟 忽起身危坐整容 握余手而大言曰 何言之中理至是也 聞子之言 吾胸爽豁 勝一貼淸涼散矣.”

어서 혹 병이 하나의 중합만이 있어서 하나의 성(性)을 가진 하나의 독(毒)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고, 혹은 병에 여러 원인이 있어서 얽히고 맺혀서 풀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조제해서 치료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기술도 정밀하고 효력도 빨랐는데 후세에는 『본초』를 익히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방(古方)만을 원다. 마치 팔미탕(八味湯)은 온보(溫補)하는 것으로만 알고, 승기탕(承氣湯)은 양사(涼瀉)하는 것으로만 알고서 곧장 전방(全方)을 들어서 마치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니, 어찌 하나하나 병에 적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소학(小學)이 폐해지자 문장(文章)이 일어나지 않고, 『본초』가 어두워지자 의술(醫術)이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sup>48)</sup>

고학을 숭상한 정약용의 학술은 『아언각비(雅言覺非)』와 「자설(字說)」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문에 있어서 기초학습을 중시하였다.<sup>49)</sup> 이는 위 인용문에서 “소학(小學)이 폐해지자 문장(文章)이 일어나지 않고”라는 말에 대응된다. 또한 그는 기초적인 학습 없이 기존 성리학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그것을 진리인양 믿는 자들을 경멸하였고, 실제적인 경제의 일을 중시하였다.<sup>50)</sup> 이러한 학문태도는 의학에 대한 관점에서도 드러났던 것이다. 고학을 통하여 기존 주자학의 형이상학 이론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졌던 그가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본초학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이 그의 본초학 관심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상적 맥락이었다.

한편, 명대 고학과 본초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것으로 왕세정과 이시진의 관계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명대 고학풍의 중심인물들 가운데

48)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卷 「醫說」, “古者醫學 專習本草 凡草木之性之氣之毒之變之制 無不講究認明 臨病用藥 或病有一崇 可以一性一毒療之者 則用一料 或病有多端 纏結難解者 卽用諸料 劑合相濟 故術精而效捷 後世不習本艸 專誦古方 如八味湯知爲溫補 承氣湯知爲涼瀉 直學全方 如使一料 安得一一中病哉 故曰小學廢而文章不作 本草晦而醫技不精云.”

49)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二卷 「雅言覺非序」;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卷 「字說」.

50)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一卷 「五學論 一」.

데 한 사람이었던 진한고문과 왕세정은 이시진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의 편찬을 돕고 그것의 서문을 써주었다. 왕세정은 이시진의 『본초강목』에서 특히 이 저작이 갖는 격물(格物)의 우수함과 박고(博古)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sup>51)</sup> 이것은 그의 고학 정신과 『본초강목』이 격물과 박고에서 만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이 명대 대표적인 진한고문과 문장가 왕세정의 후원 속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고학과 본초학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요컨대, 명대 고학의 발흥과 『상한론』의 복권은 본초학의 발전과 연결되었고, 내경학과는 다른 의학철학이 명대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증상에 따른 약에 의한 치료 그 자체를 강조하는 『상한론』과 본초학의 발전은 결국 체계적 상응을 강조하는, 즉 음양오행과 오운육기와 같은 내경학의 이론체제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학을 통한 주자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은 의학 분야에서도 내경학의 형이상학적인 이론체계보다는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한론』과 그에 따른 본초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송학의 형이상학적 담론이 퇴조하는 명나라 시대였다. 명나라 고학의 학술풍조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던 성호학과 인물들에게서 본초학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으며, 나아가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경세학의 정신과 어떻게 부합했는가는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성호학과의 본초학에 대한 관심과 민간의료에 대한 문제의식

앞서 언급했듯이 본초학은 명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고학의 학풍을 배경으로 기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선

51) 李時珍, 『本草綱目』(《文淵閣》四庫全書 772, 臺灣: 商務印書館, 1983) 「本草綱目序」(王世貞撰), “茲豈僅以醫書觀哉 實性理之精微 格物之通典 帝王之秘藏 臣民之重寶也 …… 予方著 弁州卮言 志博古如丹鉛卮言后乏人也 何幸觀茲集哉 茲集也 藏之深山石室無當 盍鏤之 以共天下後世味太玄如子云者.”



의 성호학파에게서도 보였다. 성호학파의 본초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선 기존 금원사대가의 화제(和劑)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대에는 주진형(朱震亨)·공(龔)현(龔廷賢)의 무리가 가장 경험이 뛰어난 의사들로 일컬어지는데, 벌여놓은 여러 처방들이 점차로 번다(繁多)한 데 이르렀으니, 비유하면 마치 말이 간결하지 못하면 더욱 미란(迷亂)함이 드러나서, 그물을 넓게 펼쳐 놓고 토끼를 잡으려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52)</sup>

이익은 주진형과 공정현(龔廷賢, 1522-1619)의 처방이 지나치게 번쇄하여 간결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금원사대가의 체계적 상용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익은 그들의 처방이 번다하여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음은 인지하였다. 그러면서 이익은 단순하고 간결한 고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요점을 아는 자의 말에 이르기를, “약제(藥劑)의 발생은 삼방(三方)에 불과하였으니 기(氣)에는 사군자탕(四君子湯)을 쓰고, 혈(血)에는 사물탕(四物湯)을 쓰며, 담(痰)에는 이진탕(二陳湯)을 썼는데, 모두 한 처방에 네 가지 재료였다. 후인들은 증손좌사(增損佐使)하여 경하고 중한 허다한 약재를 두고, 진찰은 정밀하지 않아 약 쓰는 것을 신중히 하지 않고, 약재를 조합하는 것은 많고 선별하는 것은 적으며, 근본은 버리고 겉만 화려하게 하여 8에서 9는 허망할 따름이었다. 산야(山野)에서 넓게 그물을 쳐놓고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나는 전적(典籍)들이 많아지자 유도(儒道)가 쇠퇴하였고 의서(醫書)가 번잡해지자 방술에 미혹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밀히 살피고 가리지 못하고는 의술이 무익(無益)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는 물이 불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sup>53)</sup>

52) 李瀾, 『星湖僊說』卷17 人事門「本草」, “後來朱震亨龔賢之屬 最稱折衷 其鋪列衆方漸至繁多 比如言辭之不簡 逾覺迷亂 有廣絡獲兔之失也.”

53) 李瀾, 『星湖僊說』卷14 人事門「醫」, “知其要者之言曰 藥劑之起不過三方 氣用四君子 血用四

이 글에서 이익은 옛날의 화제는 기(氣)에는 사군자탕(四君子湯), 혈(血)에는 사물탕(四物湯), 담(痰)에는 이진탕(二陳湯)을 썼는데 모두 한 처방에 네 가지 약이 들어있어 단순하였는데, 이후 화제가 복잡해지고 진단이 정밀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대부분 효과가 없이 허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약의 주치(主治) 개념이 흔들리자, 결국 군신좌사(君臣佐使)라는 명분으로 미봉책의 약들과 처방만이 횡행하게 된 당시의 세태를 이익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익은 서적들이 많아져서 유도(儒道)가 쇠퇴하게 되고 의서(醫書)가 번잡해져서 방술(方術)에 미혹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익은 『동의보감』의 단점으로 ‘변쇄함’을 들기도 하였다.<sup>54)</sup>

물론 『동의보감』 또한 단방(單方)에 의하여 치료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것은 『동의보감』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였다(오재근, 2013: 9-26; 오세창·김광중, 2006). 하지만 흥미롭게도 허준은 “약은 간요한 것을 귀히 여긴다(藥貴簡要)”는 단방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하면서 장중경의 『상한론』을 비교적 올바른 예로 들었다. 허준은 “상고시대에는 약 하나로 병 하나를 치료 하였으며 한나라 장중경에 이르러서도 약이 불과 3-5가지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후세에 이르러서는 2-30가지의 약재를 사용하고도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던 것이다(오재근, 2013: 2). 이를 통하여 보면 『동의보감』의 단방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국 장중경의 『상한론』과 같은 고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귀속됨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익이 『동의보감』을 변쇄하다고 일컬은 것은 이익이 가졌던 기본 관점이 고방과 깊은 관련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sup>55)</sup>

---

物 痰用二陳 皆一方四料 後人增損佐使 有許多輕重之劑 診視不精 用料不審 多合而少擇 舍本而治標 八九是妄耳 何異於廣絡原野冀獲一兔耶 余謂典籍廣而儒道衰 醫家繁而方術迷 不能審擇 以醫爲無益者 是謂水不能勝火者也。”

54) 李瀾, 『星湖僊說』卷28 詩文門 「武經經傳」, “近世醫官許浚 作醫鑑 先著內經靈樞之類 如小學首二篇 次著丹溪河間口說 如小學之嘉言 後載治病之實及諸方 如小學之稽古善行口模則得矣 但務多而義略 人又病之 聞北使之至多齋以還 上國人亦必審之矣。”

55) 이 밖에도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원서(原序)와 최명길이 쓴 『향약집성방』 발문에서도 단방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강연석, 2006: 44-45). 이것은 단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랜 연원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명대 고학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성호학과

정약용에게서도 이익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발견되었다. 정약용은 고방은 모두 간략하여 혈에는 사물탕을, 기에는 사군자탕을, 담에는 이진탕을 쓴다고 하였다.

고방(古方)은 모두 간략하여 혈(血)에는 사물(四物)을 주로 하고 기(氣)에는 사군자(四君子)를 주로 하며 담(痰)에는 이진탕(二陳蕩)을 주로 하였다. 점점 약재를 첨증(添增)함이 더해져서 많아지면 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으니 증세에 따라 잡되게 다스려서 도리어 원본을 상해하였다. 향촌은 단과(單科)로써 전공(專攻)하여 왕왕 효험이 많으니 약의 힘이 전일하기 때문이다.<sup>56)</sup>

이것은 내용의 유사성으로 볼 때, 정약용이 이익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정약용은 시대가 내려오면 올수록 약이 증가되고 어지러워졌다고 당대 의료환경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향촌에서는 ‘단과전공(單科專攻)’으로 왕왕 효험을 보는 일이 있다고 적었다. 이는 약의 주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이익과 정약용은 기존의 형식화된 화제가 아닌 좀더 간결하고 병에 적응하는 약의 조합을 찾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익은 본초학 자체에서부터 정확하고 간결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농(神農)의 『본초(本草)』는 풀의 맛을 본 것이다. 만물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의 도구인 까닭에 그 맛이 중요하다. 그러나 초목의 뿌리·싹·꽃·잎의 모양과 색깔은 각각 다르니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후세에 도홍경(陶弘景)이 신농의 유의(遺意)를 얻어 물고기와 금석(金石) 등의 본성을 분별해서 편찬하여 그 한 가지의 재

---

에 의하여 단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는 본 글의 주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고학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걷어내고 간결함과 구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할 때 오랜 연원을 갖는 단방의 전통은 조선후기 고학의 확숩경향에 의하여 다시 소환되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6)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七集 醫學集 第六卷 ○麻科會通六 醫零 雜說七, “古方皆簡 血主四物 氣主四君子 痰主二陳 漸益添增 愈多愈亂 隨症雜治 反傷原本 鄉村以單科專攻 往往多驗 藥力專也.”

료에 허다한 과별(派別)이 있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진위(眞僞)를 분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를 깊이 믿지 않는다.<sup>57)</sup>

이익은 각 초목의 뿌리, 싹, 꽃, 잎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맛을 잘 구별하여 서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홍경(陶弘景, 456-536)은 한 가지 재료에 그 용도를 여러 갈래로 분류하여 놓았으니 무엇을 좇아 참되고 거짓됨을 골라낼지 모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이익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요시마스 토도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도 흡사하였다.

대저 만물은 하늘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므로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이른다. 성은 오직 하나이고 그 능력 또한 오직 하나이다. 이것을 양능(良能)이라고 이른다. 그러나 그 다양한 능력이 있음은 성이 나뉘어 갈라진 것이지 성의 근본은 아니다. 이것을 여분의 능력이라 한다. 사람들이 여분의 능력에 현혹되어 성이 원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본초강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약의 주치(主治)를 거론한 것이 매우 많았다. 대저 주치라는 것은 성의 능력이다. 한 사물의 성이 어찌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sup>58)</sup>

요시마스 토도는 일약일능(一藥一能)의 원칙 속에서 약의 치료목표를 과다하게 기술한 『본초강목』의 번다함을 비판하였다. 앞서 이익이 “한 가지의 재료에 허다한 과별(派別)이 있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서 진위(眞僞)를 분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한 부분과 그 논지가 같다.

57) 李瀾, 『星湖僊說』 卷17 人事門 「本草」, “神農本草嘗其味 萬物終是飲食之道 故味爲重 然根苗花葉形色各殊 所以能別也 後陶隱居得神農之遺意 別撰口魚金石之性 其一材之用 有許多派別 人何從而辨出眞僞 故余未之深信也.”

58) 吉益東洞, 『東洞全集』 (東京: 吐鳳堂書店, 1918) 「藥徵」, p. 172, “夫萬物生于天也 故天命之謂性 性唯一也 其能亦唯一也 謂之良能 然其有多能者 性之所枝而岐也 非性之本也 謂之贏能 人之眩贏能 而謂性多能者多矣 余嘗讀本草 舉其主治甚多 夫主治也者 性之能也 一物之性 豈有此多能哉.”

사실 향촌에서는 번다하고 현학적인 의학이론을 논할 겨를이 없었다. 또한 값비싼 약재(藥材)를 쓸 수도 없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약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파울 U. 운슬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본초학의 의미를 잘 설명해준다: “본초학은 이론적 해석 없이도 잘 버텨왔다. 누구든 원하기만 한다면 나뭇잎의 본초이론을 생각하고 따를 수 있었다. …… 이론의 타당성이라든지 정치적 요구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원한다면 개별약물이나 처방의 효과에만 기대어 치료할 수 있었다(운슬트, 2010a: 294).” 이것은 본초학이 민중의료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내면에 가졌음을 말해준다. 장중경의 『상한론』이 출현했던 역사적인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 시기는 전란의 시기였으며, 그러므로 고상한 형이상적인 이론보다는 신속히 병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절실하였다(야마다 게이치, 2002: 171-173).

이렇듯이 본초학의 필요성은 재야의 열악한 민간의료 환경에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실태를 이익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향촌 같은 곳에서는 전혀 의술이 없으므로 단지 어떤 물건으로 어떤 병을 다스린다는 것을 들으면 단과(單科)로 오로지 치료하여 왕왕 효험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약의 힘이 전일하기 때문이다. 근자에 백합꽃 한 종류가 있었다. 흰 색깔이고 모양은 작은 병과 같으며 여름 가물 때에 풍성하다. 어떤 의원이 목구멍 병에 사용하여 문득 효험이 있었다. 방서(方書)를 참고해 보았으나 이러한 말은 없었다. 단지 “백합은 지령이다. 이것은 목구멍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운운하였다. 이에 이것으로 미루어보니 어린아이의 회질(蛭疾)을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구하면서 좋은 처방이라고 하였다. 이런 종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월수(月水)가 열(熱)을 다스리고 미역이 산부(産婦)를 위한 좋은 약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은 동속(東俗)의 중요한 처방이나 의서(醫書)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필시 저쪽에는 빠지고 이쪽에는 전해지는 것일 따름이다.<sup>59)</sup>

59) 李滉, 『星湖僿說』 卷17 人事門「本草」, “如鄉村絕無醫術 只聞某物之治某病 單科專攻 往往

이익은 시골에서는 전혀 의술이 없으므로 어떤 약재로 어떤 병을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곧 그 약재로 치료하여 효험을 보니 약의 효능이 전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의서(醫書)에 기록되지 않는 월수(月水)가 열(熱)을 다스리고 미역이 임산부에 좋다는 조선의 민간요법도 중요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익의 이 말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민간에서 본초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민간에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풀들이 좋은 약재가 될 수도 있었다. 이용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세 한 의원이 약을 쓸 적에 단지 하나의 맛으로 하나의 증세를 치료한다. 작게는 오동나무 잎과 벼줄기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효험이 많아서 사람들이 깊이 신묘하게 여겼지만 어느 처방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병중에 우연히 『본초강목』을 보고서 비로소 그 방법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개 『본초강목』가운데에는 허다히 많은 품종에서 모두 이르기를 “어떤 것은 어떤 증세에 합당하고 어떤 것은 어떤 중한 병을 치료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세속 의원들이 배워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심장을 보충함에는 인삼이고 간화(肝火)를 내리게 하는 데에는 청피이고 신장을 따뜻하게 함에는 부자이고 폐를 시원하게 함에는 석고라고 하고서 다른 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애석하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유독 의술뿐이겠는가! 대저 하늘이 인재를 낼 적에는 각각 마땅한 바가 있으니 아무개는 예를 관장할 만하고 아무개는 음악을 담당할 만하고 아무개는 무기를 맡을 만하고 아무개는 무기를 주관할 만하고 해서 마치 증세에 대해서 약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에서 취하는 바의 것은 문벌과 과거 급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오동나무 잎과 벼줄기라는 것은 일찍이 한 번도 시험을 당해 보지 못하게 되니 못정사들이 아마도 병폐에 빠지는 것이 많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느끼는 것이 있어서 쓰기를 이와 같이 한다.<sup>60)</sup>

多驗 藥力專也近有百合一種花 白色狀如小壺 夏早時方盛 有醫者用於喉病而輒效 考諸方書無此說 但云百合爲蚯蚓也 此其所以治喉病也 於是因此推之 治小兒疝疾 人皆來求以爲良方 此類不可不察也 又如月水爲治熱 海蘆爲產婦聖藥 東俗要方而醫書不見 是必彼漏而此傳耳.”

60) 李用休, 『惠寶雜著』卷12「本草」, “近世一醫用藥 只以一味治一症 微而至梧葉稻稈之類 多奇

이용휴는 근세 한 의원이 약을 쓸 적에 다만 하나의 맛으로 하나의 증세를 치료하면서 약재로 사용한 것은 오동나무 잎, 벼줄기와 같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그는 그러한 치료법은 『본초강목』에 연유한 것으로 여기에는 매우 많은 품종의 약재가 있고, 그 약재에는 각기 그것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조선의 의사들은 인삼, 청피, 부자, 석고와 같은 몇몇 약재에만 의지하니 이는 수많은 인재들을 버려두고 오로지 몇몇 가문의 인물들만 등용하는 세태와 같다고 하여, 당시 조선의 의료계와 사회를 함께 비판하였다. 이용휴의 언급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의학의 문제를 사회와 연관시켜 설명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든 약초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각각 균등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개인들도 국가에 균등히 공헌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는 본초학이 가졌던 의학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의미를 말해준다.

다음 정약용의 「촌병혹치서」 또한 일약일능과 주치의 개념을 통하여 민간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내가 장기(長鬚)에 이른지 수개월에 내 자식이 의서(醫書) 수십 권과 약초(藥草) 한 상자를 부쳐왔다. 적소(謫所)에 서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책을 볼 수밖에 없었고, 병이 들었을 때도 또한 결국에는 이 약으로 치료하였다. 하루는 관인(館人)의 아들이 청하여 이르기를, “장기(長鬚)의 풍속은 병이 들면 오직 무당으로 굿을 하고, 굿을 했는데도 효험이 없으면 오직 뱀을 먹고, 뱀을 먹어도 효험이 없으면 호연(浩然)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공(公)은 어찌하여 공이 보신 것으로 이 궁벽한 마을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좋다. 나는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하겠다” 하였다. 이에 의서 중에서 간이한 여러 처방들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

驗爲人甚神之 然不知出何方也 余病中 偶看本草 始覺其術之出于此也 蓋本草中許多諸品皆云 某當療某症 某當治某崇 而今俗醫所習用者 只是補心人蔘 瀉肝青皮 溫腎附子 涼肺石膏 而他則多不舉焉 惜哉 雖然 豈獨醫也 夫天生人才 各有所宜 某可掌禮 某可司樂 某可主兵 某可理財 如對症生藥也 而世之所取者 不出于門閥科第之外 然則彼梧葉稻稈者 曾不得一試 而庶務其多廢矣 余故感而書之如此云。”

겸하여 『본초(本草)』에서 주치(主治)의 약재를 채록하여 각 병(病)의 끝에 붙였으며, 보조 약재로서 네 개, 다섯 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다. 먼 곳에서 생산되는 약물이나 희귀한 약품들로 시골 촌부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책은 모두 40여 장이니 간략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것을 이름하여 『촌병혹치(村病或治)』라고 하였다. …… 약을 이미 간략하게 하고 반드시 주된 처방만으로 하였다. 아마도 그 효과를 취하는 것이 전일하고 신속하지 않겠는가!<sup>61)</sup>

그는 병의 증상에 맞는 주치의 약재를 가려 뽑아서 간략한 처방집을 만들었으니 그 효과가 전일하고 빠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치의 약재를 골라서 제시한 점은 병 치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정약용의 『촌병혹치』는 주치를 통한 화제의 간결함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여 민간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성호학파가 본초학에 대해서 가졌던 민간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총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익과 정약용은 본초학이라는 학문 자체보다는 본초학이 가졌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더욱 주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이익과 정약용은 당대 의술이 지나치게 번쇄하고 기존 화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조선의 주류 의학담론이었던 과거 금원사대가의 화제만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주치에 해당하는 약재를 통하여 간결한 화제를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약재 하나하나의 특성을 상세히 알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본초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병에 맞는 주치의 약재를 정확히 알아낸다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향촌사회에서 의료비용은 현격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향촌사회에서는 사실 현학적인 의학

61) 丁若鏞, 『與猶堂全書』第一集 詩文集 第十三卷「村病或治序」, “余至馨城之數月 家兒寄醫書數十卷及藥草一籠 謫中絕無書籍 不免以是書寓目 有病亦遂以是藥療之 一日館人之子請曰 馨之俗 得病唯巫禳 禳而不驗 唯食蛇 蛇而不效 浩然長逝已矣 公盍以公所寓目者 惠茲僻鄉 余曰善 吾爲若爲之 於是選其中簡易諸方錄之 兼採本草主治之品而附之各病之末 佐使列四五者不錄也 遠物稀品樵蘇之不知名者不錄也 書凡四十餘葉 可謂簡矣 名之曰村病或治 …… 藥既簡 必其主方也 其取效不專且速乎.”



이론을 논하거나 비싼 약재를 사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하기에 주변의 흔한 약재들을 통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했다. 본초학은 이러한 향촌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좋은 대안이었다. 이것은 본초학에 대한 성호학파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지향하였던 경세학의 문제의식과도 통하였다. 성호학파가 의학논의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은 기존 성리학 담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상논의, 나아가 적극적인 경세학의 모색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과 거의 부합하였다.

## 5. 맺음말

명대에 형성된 고학적인 학술경향은 한문학과 경학 부분에서 조선과 일본의 학술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 주자학적 정견이해가 여전히 주류였다는 측면에서 물론 전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의 영향은 성호학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두터웠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과 일본에서 고학의 학술경향은 지식인들이 송학에 대한 비판 작업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의학 분야도 이러한 비판 작업의 연장선 안에 있었다. 이 고학의 학술경향은 조선과 일본의 의학 지식인들로 하여금 금원사대가 의학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학이론을 찾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오운육기론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인간 몸의 형이상학적인 이해보다는, ‘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갖는 논의 또한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중경의 『상한론』과 본초학이 다시 새롭게 의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일본의 고방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호학파의 경우, 여전히 주자학의 영향력이 컸고, 고학의 영향은 일본 지식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의학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고학으로서의 『상한론』 연구는 비록 그러한 문제의식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운동이나 학파를 통

하여 적극적으로 표면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한론』의 핵심사항, 즉 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라는 의식 속에서 본초학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본초학에서는 인간 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정합적인 이해가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았다. 오히려 병의 정확한 진단과 약의 효능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였다. 이렇게 볼 때, 본초학에 대한 관심은 기존 오운육기 중심의 의학 이론이 퇴조함을 의미하였다. 명나라 말기 무희옹은 오운육기설을 비판하였고 그 대안으로 장중경의 『상한론』과 본초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요시마쓰 토도 또한 오운육기설을 비판하였고, 『상한론』을 중시하고 본초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약용에게서도 보였다. 주자학의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 속에서 새로운 사상적 대안을 찾고자 했던 정약용이 오운육기설을 비판하고 본초학에 관심 가졌던 것은 고학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학을 통하여 송대 주자학을 비판하고자 하였던 성호학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본초학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익, 정약용 등은 정확하고 간결한 처방의 중요성을 중시하였으며, 민간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본초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간 몸에 대한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이론보다는 병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약에 의한 치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본초학에 대한 관심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체계에서 벗어나, 사물 사물의 구체성을 찾는 그들의 고학적인 학술경향과 궤를 같이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성호학과 본초학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지향하였던 학술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색인어:** 성호학과, 이익, 정약용, 고학, 본초학, 장중경, 『상한론』, 요시마쓰 토도

투고일: 2015. 06. 29 심사일: 2015. 07. 15 게재확정일: 2015. 08. 04

##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 姜世晃, 『豹菴稿』, 『韓國文集叢刊續』 80(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9).
- 吉益東洞, 『東洞全集』(東京: 吐鳳堂書店, 1918).
- 金得臣, 『柏谷集』, 『韓國文集叢刊』 104(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3).
- 繆希雍, 『神農本草經疏』(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沈能淑, 『後吾知可』(후손가 소장본).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서울: 동국문화사, 1959).
- 李東允, 『樸素村話』(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李森煥, 『少眉山房藏』,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時珍, 『本草綱目』文淵閣四庫全書 772(臺灣: 商務印書館, 1983).
- 李是鉉, 『六懷堂遺稿』,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用休, 『惠寔雜著』,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李瀾, 『星湖僮說』(서울: 경희출판사, 1967).
- 李瀾,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8-200(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 李之菡, 『土亭遺稿』, 『韓國文集叢刊』 36(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 狄生徂徠, 『徂徠集』(東京: ぺりかん社, 1985).
- 鄭介清, 『愚得錄』, 『韓國文集叢刊』 40(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286(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2).
- 趙龜命, 『東谿集』, 『韓國文集叢刊』 215(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 晉州柳氏慕先錄 編纂委員會, 『晉州柳氏文獻總輯』(서울: 晉州柳氏慕先錄 編纂委員會, 1993).
- 黃甫諡, 『黃帝三部鍼灸甲乙經』(北京: 中華書局, 1985).
- 『黃帝內經靈樞』(北京: 中華書局, 1985).

〈연구논저〉

- 강경훈, 「重菴 姜彝天 文學 研究: 18세기 近畿 南人, 小北文壇 展開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秦漢古文派의 성립」, 『韓國漢文學研究』 18(1995), pp. 289-305.

- 강민구, 「類書を 통해 본 조선 士人の醫學에 대한 인식」 『星湖僿說』에 나타난 李瀼의 醫學 認識-, 『동방한문학』 58(2014), pp. 189-223.
- 강세구, 「정약용의 성호학과 재기 시도에 관한 일고찰」, 『경기사학』 4(2000), pp. 53-74.
-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鄉藥本草의 處方用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姜彝五, 「(국역)약산호고종방촬요 · 식의심감」, 안상우 외 역(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 곽호제, 「朝鮮後期 德山地域 驪州李氏家の 學問의 性格-西洋學問에 대한 對應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7-1(2004), pp. 47-77.
- 금장태, 「다산경학(茶山經學)의 탈주자학적(脫朱子學的) 세계관」, 『다산학』 1(2000), pp. 20-57.
- 김기욱 외, 『강좌 중국의학사』(고양: 대성의학사, 2006).
-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서울: 들녘, 2011).
- 김도련, 『韓國 古文의 源流와 性格』(서울: 태학사, 1998).
-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誌銘과 意園-18세기 安山圈 문인들의 불우와 위안의 예술적 형상화-」, 『韓國漢文學研究』 52(2013), pp. 125-164.
- 김두중, 『韓國醫學史』(서울: 탐구당, 1966).
- 김성수, 「朝鮮後期 西洋醫學의 受容과 人體觀의 變化-星湖學派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31(2008), pp. 311-358.
- 김영진, 「예현(例軒) 이철환의 생애와 『상산삼매(象山三昧)』」 『민족문화사연구』 27(2005), pp. 109-145.
- 김용옥, 『너와 나의 한의학』(서울: 통나무, 1993).
- 김준석, 「許穆의 禮樂論과 君主觀」 『東方學志』 54 · 55 · 56 합본(1987), pp. 245-275.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서울: 일지사, 2000).
- 김희정, 『몸 · 국가 · 우주 하나를 꿈꾸다』(서울: 궁리, 2008).
- 박경모 · 최승훈, 「康平傷寒論」의 考證을 통한 「傷寒論」과 「黃帝內經」의 비교연구, 『대한원전사의학회지』 9(1995), pp. 265-301.
- 박현국 · 김기욱 · 정경호, 「일본 '古方派' 의학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007), pp. 231-268.
- 서봉남 · 김남일, 「醫齋」으로 본 丁若鏞의 醫學思想, 『한국의사학회지』 16-2(2003), pp. 17-34.
- 신병주, 「남명학과 화담학파의 학풍 계승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 53(2004), pp. 161-185.

조성산 : 조선 후기 성호학과(星湖學派)의 고학(古學) 연구를 통한 본초학(本草學) 인식

-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서울: 일지사, 2000).
- 신현규 · 윤창렬,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5-2(1997), pp. 39-62.
- 야마다 게이지(山田慶兒),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상운 · 이성규 역(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嚴世叢 主編, 『국역 중의학술사』, 김달호 외 역(고양: 대성의학사, 2011).
-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오세창 · 김광중, 「東醫寶鑑에서 單方 民間요법이 주는 의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006), pp. 1-9.
- 오재근, 「약 하나로 병 하나 고치기(用一藥治一病): 『동의보감』 단방의 편찬과 계승」, 『의사학』 22-1(2003), pp. 1-39.
- 운솔트, 파울 U., 『의학이란 무엇인가』, 홍세영 역(서울: 궁리, 2010a).
- 이성무, 「星湖 李瀼의 가계와 학통」, 『한국실학연구』 2(2000), pp. 1-23.
- 이을호, 「茶山實學의 洙泗學的 構造」, 『아세아연구』 8-2(1965), pp. 97-104.
- 정옥자, 「眉叟 許穆의 學風」, 『朝鮮後期知性史』(서울: 일지사, 1991).
- 조기호,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서울: 군자출판사, 2008).
- 조성산, 「17세기 말 ~ 18세기 초 洛論系 文風の 형성과 朱子學的 義理論」, 『韓國思想史學』 21(2003), pp. 359-390.
- 조성산, 「16~17세기 北人 학풍의 변화와 事天學으로의 전환」, 『朝鮮時代史學報』 71(2014b), pp. 155-190.
- 조성산, 「申欽의 학문형성과 古學의 영향」, 『민족문화연구』 65(2014a), pp. 31-60.
- 최봉영, 「星湖學派의 朱子大學章句 批判論: 格物致知說을 中心으로」, 『동양학』 17-1(1987), pp. 41-57.
- 최석기, 「星湖學派의 『대학』 해석-星湖 · 貞山 · 茶山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2010), pp. 123-159.
- 최정목, 「다산의 상제에 대한 인식과 인간이해」, 『철학논총』 75(2014), pp. 501-527.
- 최진우, 「夢叟 李獻吉의 癩疹方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영우, 「17세기 중엽 南人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朝鮮後期 史學史 研究』(서울: 일지사, 1989).
- 황지영, 『명칭출판과 조선전과』(서울: 시간의 물레, 2012).
- 大木康, 『明末江南の出版文化』(東京: 研文出版, 2005).
- 大木康, 『中國明末のメディア革命』(東京: 刀水書房, 2009).
- 服部敏良, 『江戸時代醫學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07).

CHO Sung-san : The Seongho (星湖) School's Study of the Ancient Learning (古學) and Its Influence on the Debate about Materia Medica in the Late Joseon Dynasty

寺澤捷年,『吉益東洞の研究』(東京: 岩波書店, 2013).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東京: 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72).

子安宣邦,『鬼神論』(東京: 白澤社, 2002).

井上進,『中國出版文化史』(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井上進,『明清學術變遷史: 出版と傳統學術の臨界点』(東京: 平凡社, 2011).

酒井忠夫,『増補中國善書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2000).

館野正美,『中國醫學と日本韓方』(東京: 岩波書店, 2014).

Brokaw, Cynthia J., and Kai-wing Chow, eds., *Printing and Book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Chow, Kai-wing, *Publishing, Culture, and Power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Unschuld, Paul U., *Medicine in China: A History of Idea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b).

-Abstract-

# The Seongho (星湖) School's Study of the Ancient Learning (古學) and Its Influence on the Debate about Materia Medica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 Sung-san\*

\*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will determine the ways in which the ancient learning (*gu xue*, 古學) scholarship of the Seongho School, and its interest in the materia medica (*ben cao xue*, 本草學) were relat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Seongho School centered its studies mainly on classical Chinese texts of the Han (206 BC–AD 220) and pre-Han (?–221 BC) (xian-qin liang-han, 先秦兩漢) periods rather than those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618-1279). *Gu xue* scholarship emerged during the Ming dynasty era (1368–1644) as an alternative to the scholarly trends of the Song dynasty, which were dependent on Zhu Xi's (朱熹, 1130–1200) Neo-Confucianism and its interpretation of Han and pre-Han classical Chinese texts. This scholarly trend influenced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philosophy, and even medicine from the seventeenth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ies. Focusing on Korean scholarship, we find a great deal of research regarding the influence of *gu xue* on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Confucian philosophy in the late Joseon period; however, no study has examined how

---

\*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csungsan@skku.edu

Received: Jun, 29, 2015; Reviewed: Jul, 15, 2015; Accepted: Aug, 05, 2015

this style of scholarship influenced the field of medicine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intellectuals of the Seongho School, who did the most to develop *gu xue* among Joseon intellectuals, were influenced by this style of scholarship in their study of the materia medica. Jeong Yak-yong (1762–1836), the representative intellectual of the Seongho School, did not focus on complicated metaphysical medical theories, such as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theory (*yin yang wu xing shui*, 陰陽五行說) or the Five Movements and Six Atmospheres theory (*wu yun liu qi shui*, 五運六氣說). Instead, his interests lay in the exact diagnoses of diseases and meticulous herbal prescriptions which formed an essential part of the *Treatise on Exogenous Febrile Disease* (*Shang han lun*, 傷寒論) written by Zhang Zhungjing (張仲景, 150–219) in the Han dynasty. The Treatise was compatible with the scholarly purpose of *gu xue* in that they both eschewed metaphysical explanations. The Seongho School's interest in the materia medica stemmed from a desire to improve the delivery and quality of medical practices in rural communities, where metaphysical theories of medicine did not prevail and the cost of medicine was prohibitive.

**Keywords:** Seongho School, Yi Ik, Jeong Yak-yong, ancient learning, materia medica, Zhang Zhungjing, *Treatise on Exogenous Febrile Disease*, Yoshimasu Todo